

일본, 재정위기 현실화되나?

과거 10년간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도 재정위기론은 거의 대두되지 않았으나, 최근 그리스의 국가부도설과 세계주요국의 재정악화를 계기로 차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.

□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G-7 국가 중 최고

- G-7 가운데 ‘90년대 이후 재정적자 기조와 국가채무 누적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

〈표 1〉 일본의 국가채무 추이

(년말, 조 엔)

	2000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
국가채무	552.1	582.5	643.2	670.1	751.1	813.2	832.3	838.0	846.7	871.5

자료: 일본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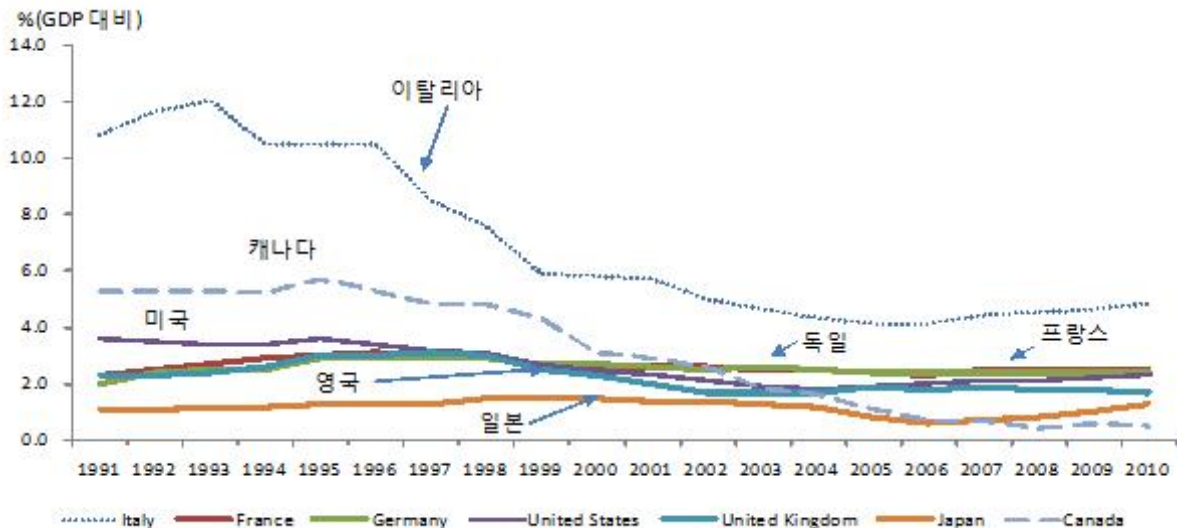
- ‘09.9월 말 기준 일본의 국가채무비율(GDP 대비)은 192.1%로 가장 높고, 이탈리아(115.2%), 그리스(108.1%), 미국(86.3%), 프랑스(79.7%), 독일(77.2%), 영국(68.5%) 순임.

□ 일본의 국가채무 누적을 가능케 한 요인은 저금리정책과 국채보유구조

- 일본 정부가 과중한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국채 추가 발행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데는 아래와 같은 일본 특유의 상황이 작용하고 있음.

- '00년대 들어 실시된 제로금리 정책은 일본 정부의 국채상환부담을 크게 경감하였고, 주요 국가별 국채이자상환비용의 GDP 대비 비율을 보더라도 일본이 가장 낮은 기현상을 초래

<그림 1> G-7의 국채이자비용(net debt interest payments) 비교



자료: OECD, Economic Outlook, December 2009.

- 일본 국채의 외국인 보유비율이 매우 낮고, 국내 금융기관 등이 국채의 대부분(65%)을 소화하고 있는 점 역시 정부의 국채발행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국채 이자율의 하향안정화에도 크게 기여

* 주요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율: 그리스 70%, 스페인 50%, 독일 53.8%, 미국 47.7%, 프랑스 34.7%, 영국 32.0%, 일본 5.8%('09년 말 기준)

-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이 일부 강등* 되고 국채부도위험이 한때** 중국 보다 높은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으나, 일본의 국가부도 사태는 발생하지 않음.

*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 추이: Moodies '09.5월 Aaa에서 Aa2로 2단계 강등(Aaa > Aa1 > Aa2), S&P '07.4월 AA-에서 AA로 1단계 상승 후, '10.1.26일 신용등급 전망을 'AA 안정적' → 'AA 부정적' 으로 한 단계 강등(AAA > AA+ > AA)

** '10.1.26일 국채 CDS 프리미엄: 일본 0.87%, 중국 0.83%

□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이 불투명한 가운데 재정위기로 대두

- ‘09.9월 출범한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은 사회보장비 억제나 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우려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.
- ‘09년 아소 자민당 정권이 ‘11년 재정수지 흑자화 목표를 포기한 이후, 하토야마 정권은 ‘10년 6월 말까지 중장기 재정운영전략과 ‘중기재정 프레임워크’^{*}을 작성한다는 계획만 밝힌 상태
 - * 중기재정프레임워크: ‘11년부터 3년간 정부부처·정책분야별 세출삭감안을 중핵으로 하는 예산 통제 프레임워크
-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국채 추가발행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*, 공적연금기관의 국채매입 축소나 개인투자자의 국채시장 이탈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 - * 지난 2월 16일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5년물 국채 입찰에서도 증권회사 등의 수요를 바탕으로 응찰배율이 3.64배에 이를 정도로 아직 국채에 대한 국내수요기반은 공고
- 중장기적으로는 가계저축을 저하 → 외국인의 국채보유 비율 증가 → 국채 이자율 상승 → 국채부담 급증이라는 시나리오도 배제하기 힘들.
 - * 일본의 가계저축율 추이: ‘80년 17.7%→’ 90년 13.5%→ ‘00년 8.7%→ ‘07년 3.3%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0.2.15/2.16일자)

일본은행 데이터베이스(<http://www.boj.or.jp/theme/stat/index.htm>)

OECD, Economic Outlook, December 2009.